

의사와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 현 경¹⁾ · 김 명 희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 복지 국가들의 보건정책은 만성 질환자와 장애자에 대한 복지 의료 관리 및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창욱, 최정근, 손미아, 문옥륜, 1994).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80년대 이후로 노인 인구나 만성퇴행성 질환의 지속적인 증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손상 및 상해로 점차 질병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통계청, 2000).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1985년 92만여 명, 1990년 96만여 명, 1995년 105만여 명, 2000년 145만여 명, 2003년 17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후천적 원인에 의해 중도 장애인이 된 경우가 89.4%였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장애인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며, 신체적 장애를 마치 정서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건강한 사람과 다른 존재로 여겨,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과 같이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edretti & Zoltan, 1990).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채 생활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치료 시설 및 인적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재활치료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이태화, 1998).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2000년도부터 16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CBR은 기존의 시설중심재활(Institution-Based Rehabilitation, IBR)과는 다르게 장애인이 소속된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전반적인 지지시스템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그들의 사회통합과 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CBR의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는 바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치료사들이다(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의료인은 장애인을 일선에서 접하면서 장애인들이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서 능동적인 주체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이태화, 1998; 정명실, 1996; 한혜숙, 임난영, 2002),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일반인보다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의료인의 긍정적인 태도는 재활치료과정을 장애인 중심으로 이끌어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tonak, 2000; Slevin & Sines, 1996; Thompson, Emirch & Moore, 2003). 또한 의료인의 태도가 보건의료환경을 넘어서 사회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주요어 : 의사, 간호사, 장애인, 태도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부산대학교병원 간호부, 2)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4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4일

의료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국외연구로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사회사업가를 비교한 연구(Wolraich & Siperstein, 1986)에서 의사의 태도는 다른 전문인들 보다 부정적이었으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White & Olson, 1998)에서도 간호사의 태도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사와 보호자의 태도를 비교한 연구(김형섭 등, 1996)에서 간호사는 보호자들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의료인과의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의 의미와 치료방향을 재정립하게 되므로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장애인의 재활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연구목적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의사 및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의사 및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를 비교한다.
- 의사 및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를 알아본다.

용어정의

- 의료인
- 이론적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1장 2조).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B광역시 1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말한다.
- 장애인에 대한 태도
- 이론적 정의 : 장애인 즉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 복지법 제2조, 1999)에 대한 생각 따위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말한다(동아 국어사전, 1988).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Antonak(1982)이 개발하고 최국환(2000)에 의해 번역된 한글판 SADP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1개 대학병원에 2004년 3월 현재 재직 중인 의료인 중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함을 동의한 의사 90명과 간호사 114명으로 총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태도 측정 도구는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Scale of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sons)를 최국환(2000)이 역 번역 절차를 이용하여 번안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총 24문항, Likert 6점 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3, 전적으로 동의한다 +3). SADP 점수는 부정문항(#2, 3, 4, 8, 9, 10, 14, 17, 18, 19, 22)의 역환산 점수를 구한 다음 총 24문항 각각의 점수를 합한 뒤 상수 72를 더한 값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44점의 점수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Antonak, 1982). SADP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8이었으며, 한글판 SADP의 Cronbach's Alpha=.80,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 기간은 2004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각 병동의 수간호사와 해당 의국의 의국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1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7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97.6%)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3부를 제외한 총 204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태도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의사 및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는 t-test와 F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졸업 19.3%, 학사 73.7%, 석·박사 7.0%로 전체 대상자의 89.6%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의사 57.8%, 간호사 59.1%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근무부서는 의사의 경우 내과계 24.4%, 외과계 50.6%, 특수부서(인턴) 25.6%였으며, 간호사의 경우 내과계 32.4%, 외과계 58.8%, 특수부서(응급실, 보험관리팀) 8.8%로 외과계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54.9%였다. 또한 의사의 평균근무경력은 1.8년(±15.6)이었으며 간호사는 5.1년(±69.9)으로 대상자의 69.6%가 4년 미만이었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204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턴 및 전공의로 구성된 의사의 경우 남자 75명, 여자 15명으로 90명이며 간호사는 114명 모두 여자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7.6(±4.9)세였으며 77.9%가 미혼이었다. 학력은 의사의 경우 학사 65.6%, 석·박사 34.4%였으며, 간호사는 전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표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평균 태도점수는 105.71(±14.52)점이었으며, 의사 100.67(±15.25)점, 간호사 109.69(±12.62)점으로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3, p<.00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의사(n=90) n(%)	간호사(n=114) n(%)	계(N=204) n(%)
성별	남	75 (83.3)	—	75 (36.8)
	여	15 (16.7)	114 (100)	129 (63.2)
연령	22세 ~ 29세	79 (87.8)	88 (77.2)	167 (81.9)
	30세 ~ 39세	11 (12.2)	18 (15.8)	29 (14.2)
	40세 ~ 53세	—	8 (7.0)	8 (3.9)
	평균(표준편차)	27.2(2.5)	27.8(6.1)	27.6(4.9)
결혼상태	미혼	74 (82.2)	85 (74.6)	159 (77.9)
	기혼	16 (17.8)	29 (25.4)	45 (22.1)
학력	전문대졸	—	22 (19.3)	22 (10.4)
	학사	59 (65.6)	84 (73.7)	143 (70.4)
	석·박사	31 (34.4)	8 (7.0)	39 (19.2)
종교	불교	15 (16.7)	37 (32.5)	52 (25.5)
	기독교	14 (15.6)	18 (15.8)	32 (15.7)
	천주교	19 (21.1)	11 (9.6)	30 (14.7)
	기타	4 (4.4)	1 (0.9)	5 (2.4)
	무	38 (42.2)	47 (41.2)	85 (41.7)
근무부서	내과계	22 (24.4)	37 (32.4)	59 (28.9)
	외과계	45 (50.0)	67 (58.8)	112 (54.9)
	특수부서	23 (25.6)	10 (8.8)	33 (16.2)
근무경력	2년 미만	50 (55.6)	37 (32.4)	87 (42.6)
	2년 이상~4년 미만	31 (34.4)	24 (21.1)	55 (27.0)
	4년 이상~6년 미만	9 (10.0)	20 (17.5)	29 (14.2)
	6년 이상~8년 미만	—	15 (13.2)	15 (7.4)
	8년 이상	—	18 (15.8)	18 (8.8)
	평균(표준편차)	1.8 (15.6)	5.1 (69.9)	3.7 (56.7)

<표 2> 의사와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

구분	Total(N=204) M(SD)	의사(n=90) M(SD)	간호사(n=114) M(SD)	t	p
태도점수	105.71(14.52)	100.67 (15.25)	109.69 (12.62)	-4.63	.000

의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

본 연구에서 의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는 <표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여자가 104.13점, 30대가 110.40점, 기혼이 105.56점, 석·박사의 학력자가 102.13점,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02.82점이었으며 내과계 근무자가 106.32점, 4년 이상~6년 미만의 근무경력자가 105.44점으로 더 높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는 <표

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30대가 111.06점, 미혼이 109.71점, 석·박사의 학력자가 110.63점,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110.57점이었으며 외과계의 근무자가 110.87점, 8년 이상의 근무자가 111.33점으로 더 높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평균 105.71점이었으며, 집단별로는 간호사가 109.69점으로 의사 100.67점 보다 9.02점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로 수행된 최국환(2000)의 연구에서 재활기관 직

<표 3> 의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 (n=90)

특성	구분	n	M(±SD)	t(F)	p
성별	남자	75	99.97(±15.11)	-96	.338
	여자	15	104.13(±16.00)		
연령	24세 ~ 29세	79	99.30(±15.35)	3.03	.054
	30세 ~ 39세	11	110.40(±10.38)		
	40세 ~ 53세	8	109.75 (±8.35)		
결혼상태	미혼	74	99.61(±15.15)	-1.42	.158
	기혼	16	105.56(±15.21)		
학력	학사	59	99.90(±14.10)	-.66	.513
	석·박사	31	102.13(±17.39)		
종교	유	52	99.10(±15.33)	-1.15	.255
	무	38	102.82(±15.07)		
근무부서	내과계	22	106.32(±11.74)	2.49	.089
	외과계	45	97.64(±15.73)		
	특수부서	23	101.17(±16.24)		
근무경력	2년 미만	50	99.28(±15.92)	.69	.500
	2년 이상~4년 미만	31	101.51(±14.76)		
	4년 이상~6년 미만	9	105.44(±13.33)		

<표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 (n=114)

특성	구분	n	M(±SD)	t(F)	p
성별	여자	114	109.69(±12.62)		
연령	22세 ~ 29세	88	109.41(±13.02)	.13	.882
	30세 ~ 39세	18	111.06(±12.64)		
	40세 ~ 53세	8	109.75 (±8.35)		
결혼상태	미혼	85	109.71(±13.17)	.02	.985
	기혼	29	108.45(±13.48)		
학력	전문대졸	22	108.55(±12.40)	.12	.885
	학사	84	109.90(±12.99)		
종교	석·박사	8	110.63(±10.14)	.88	.380
	유	67	110.57(±12.00)		
근무부서	무	47	108.45(±13.48)	.08	.450
	내과계	37	108.46(±13.30)		
근무경력	외과계	67	110.87(±12.35)	.27	.894
	특수부서	10	106.40(±12.01)		
	2년 미만	37	108.51(±12.52)		
	2년 이상~4년 미만	24	110.71(±12.32)		
	4년 이상~6년 미만	20	108.35(±14.33)		
	6년 이상~8년 미만	15	110.80(±13.58)		
8년 이상	18	111.33(±11.37)			

원의 평균은 120.02점, 일반인은 114.39점으로 모두 의료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am(2001)의 연구에서도 총 평균점수 107.74점으로 본 연구에서 의사의 태도점수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김형섭등(1996)은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려움', '자립문제', '예후', '가족의 사회적 체면', '치료의 단종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서 보호자들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Slevin과 Sines(1996)의 연구에서 일반 병원 간호사 31명의 학습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Wolraich와 Siperstein(1986)이 의사와 교육자, 사회사업가, 심리학자를 대상으로 정신박약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역시 의사의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White와 Olson(1990)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작업치료사와 간호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치료사가 더 높은 태도점수를 보인 Packer(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가 간호사 보다 유의하게 낮은 태도점수를 나타냈으나 의사, 간호사 모두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점수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므로(Goddard & Jordan, 1998; Tompson et al., 2003),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 및 간호사 각 집단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자가 104.13점으로 남자 99.97점 보다 높았으며, 간호사는 모두 여자 109.69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박성애(1984)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정상아동의 태도변화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이었으며 Antonak(1981)이 32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던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홍성윤(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최국환(2000)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어진 성별이라는 조건보다는 의사,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의사의 경우 30대가 110.40점으로 20대 99.30점 보다 태도점수가 높았으며, 간호사는 30대가 111.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 40대 109.75점, 20대 109.41점으로 태도점수가 낮아졌다. 이종남(1994)과 채은선(1999)의 연구에서는 2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낮아져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의 증가만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장애인 접촉경험의 빈도 및 기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의 질적인 접촉 경험의 빈도 및 기간은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박성애, 1984; 이종남, 1994; 이학범, 2000; 채은선, 1999; Antonak, 1981; Choi & Lam, 2001). 즉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 또한 접촉 기간이 길수록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은 임상에서 계속하여 장애인을 접하게 되므로 30, 40대 대상자의 경우 20대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장애인 접촉 경험을 갖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O'Connor와 French(1998)는 특수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의사, 간호사 모두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태도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간호사의 경우 4년 이상 ~ 6년 미만의 대상자에서 가장 낮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채은선(1999)의 비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인과의 접촉 기간에 따른 태도점수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초기접촉(1년 이하)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일정기간(1년 ~ 1년 6개월)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가 낮아지고 또 그 이상으로 접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여 본 연구의 근무경력에 따른 태도 점수의 변화추세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 경험뿐만 아니라 접촉의 내용 또는 접촉에 의해 어떠한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Yuker, 1994).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석·박사 102.13점으로 학사 99.90점보다 높았으며 간호사도 석·박사 110.63, 학사 109.90, 전문대졸 108.55로 학력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고학력자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음을 보고한 이전의 연구들(이종남, 1994; 채은선, 1999; Choi & Lam, 2001; Slevin & Sines, 1996)과 유사한 것이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와 가지지 않은 대상자간의 비교에서 의사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이 102.82점, 간호사의 경우 종교가 있는 사람이 110.57점으로 각각 미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종남(1994)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나, 채은선(1999)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종교에 따른 일관된 연구 결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종교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회통합과 비장애인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차이를 나타낸다(이종대, 1985)는 것으로 일부 설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조직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실천적 기구의 설치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 조직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사의 태도점수가 간호사의 점수보다 낮았으나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일반인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인의 태도점수가 낮은 이유를 찾아 장애인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리 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며, 의료인의 태도점수가 비교적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일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결과요약

본 연구는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1개 대학병원에 2004년 3월 현재 재직 중인 의사 90명과 간호사 114명으로 총204명이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04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총 24문항,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된 SADP(Scale of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sons; Antonak,198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및 F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사 90명 중 남자가 75명, 여자가 15명이며 간호사는 114명 모두 여자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7.6(±4.9)세였으며 77.9%가 미혼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89.6%가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근무경력(의사가 1.8년

(±15.6), 간호사가 5.1년(±69.9)이었다.

- 간호사의 태도점수 109.69(±12.62)와 의사의 태도점수 100.67(±15.2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63, p<.001$)를 보였다.
- 의사 및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비교적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 본 연구에 사용된 태도검사 도구인 SADP(Scale of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sons)는 일반 장애유형에 대한 측정도구로 장애유형에 따라 의료인의 태도를 조사해 볼 것을 제언한다.
- 장애인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를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형섭, 서상훈, 박상곤, 김윤희, 김소희, 오석배 (1996). 용인정신병원 간호사, 보호자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용인정신의학보*, 3(1), 47-60.
- 박성애 (1984). *신체장애아에 대한 정상아동의 태도변화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현황과 전망*.
- 이종남 (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대 (1985).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욱, 최정근, 손미아, 문옥륜 (1994). 우리나라의 신체 장애 평가법에 관한 비교연구. *예방의학회지*, 27(3), 627-651.
- 이태화 (1998).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 재활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간의 비교연구. *간호학탐구*, 7(1), 196-202.
- 이학범 (2000).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실 (1996). 지체장애 인식에 대한 개념 분석. *대한간호*, 35(4), 64-74.
- 채은선 (1999). *비장애아 어머니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국환 (2000). 한국재활기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지*, 10(2), 81-91.

- 통계청 (2000). *사망원인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포럼*, 3, 71-75.
- 한혜숙, 임난영 (2002). 장애인의 재활동기 측정 도구개발. *성인간호학회지*, 14(4), 554-563.
- 홍성윤 (2002).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tonak, R. F. (1981). Prediction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 multivariate analysis. *J of Gen Psychol*, 104, 119-123.
- Antonak, R. F., & Livneh, H. (198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J Appl Rehabil Couns*, 13(2), 22-29.
- Antonak, R. F. (1988).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methods, psychometric and scales*(1-306).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Antonak, R. F. (2000).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il Rehabil*, 22(5), 211-224.
- Choi, G. H., & Lam, C. S. (2001). Korean students' differential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an acculturation perspective. *Int J Rehabil Res*, 24, 79-81.
- Goddard, L., & Jordan, L. (1998). Changing attitudes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 effects of a simulation. *J Neurosci Nurs*, 30(5), 307-313.
- O'Connor, J., & French, R. (1998). Para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physical education. *Percept Mot Skills*, 86(1), 98.
- Packer, T. L., Iwasiw, C., Theben, J., Sheveleva, P., & Metrofonova, N. (2000). Attitudes to disability of Russian occupational therapy and nursing students. *Int J Rehabil Res*, 23(1), 39-47.
- Pedretti, L. W., & Zoltan, B. (1990). *Occupational therapy : Practice Skill for Physical Dysfunction*(1-1050). The C.V. Mosby company.
- Slevin, E., & Sines, D. (1996). Attitudes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towards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fluences of contact, and graduate-non graduate status, a comparative study. *J Adv Nurs*, 24, 1116-1126.
- Thompson, T. L., Emirich, K., & Moore, G. (2003). The effect of curriculum on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isability. *Rehabil Nurs*, 28(1), 27-30.
- Yuker, H. (1994) Variable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Conclusions form the data. In D. S. Dunn (Ed.), *Psychosocial perspectives on disability*(Special issue). *J Soc Behav Pers*, 9(5), 3-22.
- White, M. J., & Olson, R. S. (1990).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A Comparison of Rehabilitation Nurse, Occupational Therapists and Physical Therapists. *Rehabil Nurs*, 23(3), 126-131.
- Wolraich, M. L., & Siperstein, G. N. (1986). Physicians and other professionals' experience and prognosis for mentally retarded individuals. *Am J Ment Defic*, 91(3), 244-249.

Attitudes of Physicians and Nurses toward with Disabled Person

Jung, hyun kyeong¹⁾ · Kim Myung Hee²⁾

1)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attitudes of physicians and nurses. **Method:** Attitudes were measured by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SADP(Scale of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sons : Choi, G. H., & Lam, C. S., 2000). A korean version SADP consist of 24-item, six-point Likert-type scale(the points are -3, -2, -1, +1, +2, +3, where -3 is disagree very much and +3 is Agree very much), measuring general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ample included 90 physicians, 114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Busan.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one-way ANOVA. **Result:** When studying the physicians group by itself, SADP scores tended to increase with women physicians, old age, married, higher educational level, more years of experience, medical unit. When studying the nurses group by itself, SADP scores tended to increase with the age of thirty, single, educational level, more years of experience, surgical unit. But not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gree. **Conclusion:** Findings suggest that the nurse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he physicians($t=-4.63$, $p<.001$). When studying the physicians group and the nurses group by itself, not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gree.

Key words : Physicians, Nurses, Disabled persons, Attitud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g, hyun kyeong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10 Ami-Dong Seo-Gu, Buasn 602-739, Korea

Tel: +82-55-276-7896 C.P.: 016-9494-4263 E-mail: hyunk-jung@hanmail.net